

‘섬 연구협력체’ 출범…글로벌 해양 특성화 본격화

목포대·해양유산연구소·섬진흥원 등 4개 기관 협약
섬 연구 성과 공유 협력…사업 발굴·실행 방안 논의

목포대도서관연구원은 최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 한국섬진흥원(원장 조성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섬 연구기관협의회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섬을 대상으로, 해양유산·문화·생태·정책·학술 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별 기관이 수행해 온 섬 관련 조사·연구를 협의회 체제로 전환해 보다 체계적인 공동 활용과 확산을 도모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섬 관련 조사·연구자료 및 통계의 공동 축적·공유, 해양유산·생물다양성·섬 정책·학술 분야 공동 조사·연구, 국내외 섬 연구 네트워크 연계, 학술·교육·홍보 활동 분야에서 협력한다.

섬 연구기관 협의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공동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조정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실무협회는 연차별 협력 과제와 공동 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섬을

주제로 한 시민 대상 강좌 운영, 섬 연구동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소식지(뉴스레터) 발간, 기관 공동 참여 방식의 섬 현장 조사, 학술대회 공동 참여 등 구체적인 공동 사업 추진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도서관연구원은 올해로 설립 43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적인 섬·해양 전문 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축적해 온 섬 융합연구 성과와 현장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 내 연구기관 간 협력과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목포대는 섬과 해양 연구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진행하는 등 글로벌 해양 특성화대학 실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원은 최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과 함께 섬 연구기관협의회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29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예술동아리 유공학생 전남교육위원회 표창 수여식’과 예술동아리 ‘락류’ 단복 수여식을 개최했다.

영광교육지원청, 예술동아리 유공학생 표창 수여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여한 학생들 격려
학생 예술동아리 ‘락류’ 단복 수여식도 개최

영광교육지원청은 29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예술동아리 유공학생 전남교육위원회 표창 수여식’과 예술동아리 ‘락류’ 단복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대표 학생 예술동아리인 ‘락류’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표창 대상 학생과 지도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여식에서는 예술 활동을 통해 학교 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공학생들에게 전남교육위원회 표창장이 수여됐다.

학생들은 표창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실한 예술 활동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락류’ 단복 수여식에서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상징적

인 의미를 단복에 담아 전달했다.

단복을 착용한 학생들은 단체 기념촬영한 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락류는 올해 새로운 작품과 공연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예술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며 “락류를 비롯한 학생 예술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박운덕 송시마을 대표 ‘대한민국 대한명인’ 선정
전국 최초 전통 한과·오란다 분야·한과 외길·대중화 공로

여수 송시마을 주식회사 박운덕 대표가 ‘제35차 대한민국 대한명인’ 전통 한과·오란다 분야 1호 명인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대한명인은 우리 문화 가치를 선양하고 문화예술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인물 가운데 지역 내 문화적 업적이 크고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대에 선정되는 제도다.

박 대표는 20여년간 전통 한과 분야에서 기술 계승은 물론 교육과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장인으로, 전통 식문화 보존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식품분과 전통 한과·오란다 분야 최초의 대한명인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한과를 만드는 정성 어린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전통의 맛을 재현하고 계승·발전시켜 온 박운덕 대표의 대한명인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수의 대표 전통 식문화 브



여수 송시마을 주식회사 박운덕 대표(왼쪽)가 ‘제35차 대한민국 대한명인’ 전통 한과·오란다 분야 1호 명인으로 선정됐다.

랜드로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조선간호대, 대학 혁신·지역 연계 성과 공유

대학 혁신지원·광주 RISE 사업
교직원·학생·산업체 ‘한자리에’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는 지난 27일 광주 리마디플라자 총창호텔에서 ‘2025학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대학 혁신과 지역 연계 성과를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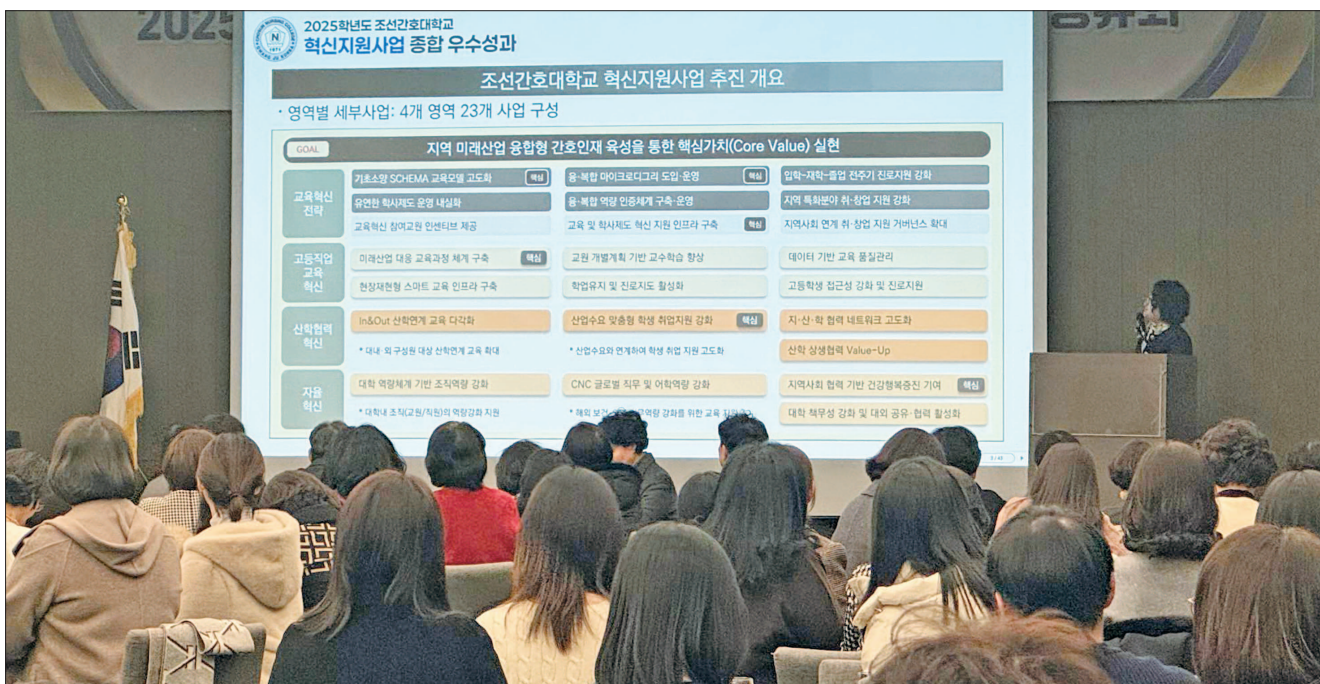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강신정 대학인재정책과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산업체,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에서는 ‘지역 미래산업 융합형 간호인재 육성을 통한 핵심가치(Core Value)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조선간호대는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성, 교육수요자 성공, 지역 및 산·학 동반성장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사업을 운영해 대학 혁신 성과를 도출했다.

이날 최미정 사업단장은 종합 및 영역별 우수성과를 발표했으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인 ‘모자바위조’의 박상현 학생은 ‘캘리컷’을 주제로 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광주 RISE사업 및 교교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 성과 발표에서는 △교교 연계형 예비인재 양성 △광주 일자리·취업·기업 ON 얼라이언스 운



조선간호대학교가 27일 광주 동구 리마디플라자 총창호텔에서 ‘2025학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혁신지원사업과 광주 RISE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영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 등 3대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간호·보건 인재 양성과 협력 성과가 소개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우수상)을 비롯해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박명희 총장은 “혁신지원사업과 광주

RISE사업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 간호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전남지역의 혈액 수급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임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광주신세계, 임직원·고객이 함께 헌혈 캠페인
혈액 수급 불안 속 이웃 사랑 실천…올해 세 차례 예정

광주·전남지역의 혈액 수급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임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2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전남지역 헌혈자는 17만 9759명에서 지난해 10만 1313명으로 43% 감소했다.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지난 27일 기준 광주·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권장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4.5일분(0형 4.6일, A형 3.6일, B형 6.2일, AB형 3.6일)에 불과하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백화점 본관 1층 후문 앞에서 ‘2026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신세계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일반 고객들이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이사는 “혈액부족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임직원 단체 헌혈을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탬 수 있게 헌혈 캠페인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 단체헌혈을 실시하며 대한적십자사 기념품 외에도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며 임직원과 고객 참여를 유도해왔다.

덕분에 1년에 두 차례 단체헌혈을 할 때마다 임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연간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혈액 부족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임직원 단체 헌혈을 세 차례로 늘릴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